

진흥회 활동

전해 칩 콘덴서 표준화 회의

본회 부품과에서는 지난 12. 15(월) 본회 중회의실(10층)에서 삼성전기, 삼영전자, 삼화전기, 대우전자부품들이 모인 가운데 표준화회의를 개최하였다.

주요 협의 사항으로는 전해 칩 콘덴서 포장방법 초안을 수립하였으며 초안으로 작성된 규격과 EIAJ에서 제정한 테이핑 치수(EIAJ RC-1011)을 참고하여 보완하기로 하였다.

이외에도 ITA 무세화 대상품목을 검토하였는데, 지금 업체별로 수출과 내수 비율이 3:7인 상황에서 내수시장에서도 가격이나 외국제품과의 가격 경쟁에서 열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수입관세를 무세화로 갈 경우 경쟁자체를 상실하게 될 우려가 있음에 따라 전해콘덴서, 탄탈콘덴서 등 동 업체와 해당제품의 무세화에 원칙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하기도 하였다.

스위치·블록업계 영업부서장 회의

본회 부품과에서는 지난 12월 4일 LG전자부품, 경인전자, 스마텔, 삼우전자, 삼원전기, 제일물산의

국내 6개 스위치 영업부서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그날 회의에서는 원자재 가격상승, 공급과잉에 따른 재고물량소진 등을 위한 각사의 대응방향에 대해 토론하고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불용재고의 상호 원활화를 위한 대응방향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자기미디어 산업협의회 임원회의

본회 부품과에서는 지난 12월 12일 SKC, 새한미디어, LG전자, 코오롱 등 자기미디어 산업협의회 임원들이 모인 가운데 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내용은 요즘 공급과잉에 의한 가격하락과 환율(원화절하) 변동에 따른 추가 하락 경향에 따른 대응전략에 대해 협의하였다.

또한 자기미디어 산업협의회 '98년도 신입회장으로 (주)코오롱 구광시 대표이사가 선임되었다.



'97주요전자제품 대일본 수출 애로조사

“대일본 수출의 가장 큰 애로요인은 환율불안 및 원가상승”

본회 국제협력과에서는 국내 전자산업이 그동안 가전제품을 중심으로 대일수출시장 진출을 기대하여 왔으나 일본과의 교역에서 환율불안 및 원가상승에 따른 가격경쟁력 상실과 신흥개도국의 진입 및 일본 기업의 역수입증가에 따른 시장잠식으로 갈수록 무역적자가 심화되고 IMF 지원에 따른 수입선 다변화 폐지로 거대 일본기업의 무차별 국내시장 진출이 예상되는 현 상황에서 대일본 수출 경쟁력 확보와 무역구조 개선을 위해 우리전자산업은 원가절감 및 품질개선, 신기술 고부가가치 제품의 개발 및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대응해야 하며 또한 정부의 과감한 행정규제 완화조치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최근 조사한 『'97 주요 전자제품 대일본 수출애로조사』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한국전자산업의 대일본 수출은 97년 1~10월 중 34억불로 전년 동기비 2.3% 감소하여 96년에 이어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며, 무역수지 적자폭도 38억불이나 돼 여전히 무역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액정디바이스,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음극선관 등이 호조를 보이고 있으며 CTV, VTR, 냉장고, 전자렌지 등 주력제품의 경우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동 조사보고서는 전자산업 50대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대일본 수출품 중 36개의 유효조사 품목에 대한 수출애로요인은, 채산성, 경쟁력, 제품불량율, 업계의 대응실태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대일본 수출환경에 있어서 기업이 처한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환율요인을 꼽았고 다음으로 원가상승, 해외시장개척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년 상반기에 지속된 엔화약세와 국내 전자산업의 고비용구조에 따른 가격경쟁력 상실, 채산성 악화 등의 수출

경쟁력 상실에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수출 채산성에 대해서는 전체의 68.7%가 「거의 이윤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적자수출을 하고 있는 경우도 12.5%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음극선관, 액정디바이스 등이 상당한 이윤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CTV, VCR, Notebook PC, CPT, C/Tape 등이 적자수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 경쟁대상국으로는 일본(응답업체의 38.1%), 신흥공업국(23.8%), 후발개도국(19.0%) 순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제3국에 진출한 일본기업이 주 경쟁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장체어 상황은 응답업체의 72.7%가 시장잠식을 경험하고 있으며 특히 기존의 NICS 외에 후발개도국의 품질수준 향상으로 동급 타국제품(54.5%)에 의한 시장상실이 현저히 진행되고 있다고 동 보고서는 밝혔다.

또한 타국 동종동급 제품을 비교할 때 업체의 50%가 「우리제품가격이 비싸다」고 응답함으로써 가격 경쟁력 약화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본산 및 일본기업의 해외 현지 생산 역수입 제품가격과 비교할 때는 중간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품질면에서는 다른 경쟁국들에 비해 다소 우위를 보이거나 A/S, Brand 인지도, 판매망, 제품다양성 등 비품질면에서 열위를 보임으로써 비가격경쟁력의 확보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언급했다. 제품불량율의 경우 주로 VCR과 같은 고기술 품목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근로의욕감퇴, 기술수준낙후 등이 주요인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수출애로 타개를 위해 업계의 약 72.7%가 원가절감 및 품질개선 등 자구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거시정책의 안정적인 운용을 통한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과 대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대일 수출경쟁력 회복과 무역불균형 해소방안으로 ▲ 수출구조 고도화를 통한 비메모리 분야 육성 ▲ 환율 한계상황 설정을 통한 경영목표 수립 및 전략 모색 ▲ 상품개발능력의 고도화 ▲ 생산요소 비용절감을 위한 정부의 과감한 행정규제 완화

▲ 고부가가치 제품에 대한 개설투자 확대 ▲ 시장 패턴에 대응한 신상품 적기 출시 및 시장선점 ▲ 전략적인 통합 마케팅 접근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진흥회는 밝혔다.

모니터 수출분과위원회 회의

본회 정보산업과 모니터 수출분과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5일 본회 회장실에서 삼성전자, 대우전자, 한솔전자, KDS, LG전자, 현대전자가 모인 가운데 '97년도 국내 모니터 시장동향 점검과 수출확대 방안 및 '98년 계획을 협의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하였다.

'97년 모니터 동향으로는 올해 예상했던 수출목표에는 미치지 못하나 전반적으로 모니터 업계는 상승하였으며 14", 15", 17" 모니터 가격이 분기별로 3~5\$씩 하락된 가격으로 판매되었다. OEM 방식의 수출보다는 자가브랜드의 수출 물량을 늘리고 있으며 수출대상국가 수가 전년에 비해서 증가되었다.

21" 이상의 대형제품은 전문적인 분야 외에는 수요가 적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98년도 모니터 산업의 예상으로 내년에는 기존의 해외공장에 이어서 신규공장 준공 및 라인 증설 등을 통해 해외 생산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내년의 모니터 가격은 15" 가격에 따라 14" 및 17"의 가격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15" 가격이 현재보다 5\$ 이상 떨어지는 않을 전망이다. 출혈경쟁으로 인한 우려가 예상되며 14" 가격은 1~2\$ 상승한 가격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17" 및 21" 이상의 대형 모니터는 가격이 계속 하락할 것으로 보이며, 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요증가로 생산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규칙 개정안에 대한 제2차 건의

본회 산업전자과에서는 지난 12월 9일 본회 회의실에서 삼성전자, LG전자, 해태전자, 대우통신, 한화정보통신, LG정보통신, 현대전자산업 등 관련업체들이 모인 가운데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 개정안에 대한 건과 '98년 사업계획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

그리고 각 관련업체들의 의견수렴 결과 낙하충격시험의 시행시기연기 등에 대해 정보통신부에 건의하기로 하였다.

건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에 대한 제2차 건의〉

1. 비포장상태에서의 낙하충격시험은 최대한 연기
요망 : '99년말 이후

○ 건의 사유

—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의 자금지원 등으로 기업의 경영 여건이 향후 몇 년간 더욱 어려워질 전망인데 원가 상승요인이 큰 기술기준의 개정은 기업 경영뿐 아니라 소비자 물가에도 영향을 미침

— 기술기준의 국제화 추세에 부응하는데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으나 모든 측면에서 미국식 기준을 지금 반드시 따라가야 할 이유는 없으며 우리의 실정과 손익을 감안, 시행을 당분간 유보('99년말 이후) 요망

2. 시행을 하더라도 관련산업계가 차츰 적응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시행 :

· 예) 첫해는 6회, 이듬해 12회, 3년차 18회

○ 건의 사유

— 충격 횟수가 많을수록 제품의 내성이 약해지는 것은 당연하므로 한꺼번에 미국식으로 18회씩 충격 시험을 실시할 경우 기술적인면 등에서 제조업체가 적응하기 어려우므로 국내 중소 중견기업들까

지 단계적으로 적용해나갈 수 있도록 배려 요망
 - 현재 국내 제조업체의 대다수가 6회 정도의 낙하충격시험을 자체적으로 시행후 제품을 출고하고 있는 점도 감안 요망

3. 낙하후 합격 조건에 대한 단서 조항 보완

○ 낙하충격시험후의 처리 기준(안) :

제44조(환경조건)

1. 낙하충격시험

가. - 나.(생략)

다. 낙하충격시험후의 처리기준<신설>

1) 낙하충격시험후 기술기준을 초과하는 불요과 발생 등 전기통신망에 위해를 주거나 타 통신기기에 위해를 주는 신호 발생시에는 불합격 처리한다.

2) 낙하충격시험후 고장으로 인해 통화자체가 곤란할 경우에는 그 원인을 제거 또는 보완한 후 기술적 조건을 시험하여 합격여부를 결정한다.

3) 낙하충격 시험후 통화와 관계없는 부분(외관 등)의 손상 또는 부분품의 이탈 등은 불합격 처리하지 아니한다. 끝

○ 건의 사유

- 기술기준 제정 및 시험의 목적이 통신망 보호와 타통신기기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함임을 감안

- 국가에서는 최소한의 필수적인 측면만 규제하고 원래 목적과 무관한 사항인(외관 재질의 견고성 등)에 대하여는 규제하지 아니하고 업계의 자율에 맡겨 품질 향상을 도모토록 권장함이 바람직하다.

회원사 창립일을 축하합니다

회 사 명	창립연월일
능 한 전 자 (주)	1983. 1. 1
신 영 상 정 보 통 신 (주)	1995. 1. 1
목 성 전 자 통 신 (주)	1997. 1. 1
(주) 오 성 전 자	1983. 1. 4
코 리 아 일 렉 콤 (주)	1984. 1. 4
점 보 실 업 (주)	1967. 1. 5
(주) 필 립 스 전 자	1976. 1. 5
해 양 전 자 장 비 (주)	1973. 1. 9
코 리 언 일 렉 트 로 닉 스 파	1985. 1. 9
(주) 다 우 기 술	1986. 1. 9
중 우 전 자 (주)	1993. 1.11
한 주 전 자 (주)	1971. 1.12
대 덕 산 업 (주)	1965. 1.13

회 사 명	창립연월일
삼 성 전 자 (주)	1969. 1.13
(주) 엔 케 이 전 자	1968. 1.17
신 아 기 업 (주)	1984. 1.17
송 우 전 자 (주)	1992. 1.17
뉴 코 리 아 진 흥 (주)	1989. 1.18
합 동 전 자 통 신 (주)	1971. 1.20
코 오 롱 전 자 (주)	1988. 1.22
한 전 정 보 네 트 워 (주)	1992. 1.23
(주) 서 통	1954. 1.26
한국 전 자 부 품 공 업 (주)	1973. 1.26
동 방 전 자 산 업 (주)	1966. 1.27
(주) 아 남 에 스 엔 티	1979. 1.27
(주) 새 한 전 자	1978. 1.30
(주) 메 디 갈 써 프 라이	1989. 1.31

진흥회 12월 주요행사 및 회의

일 자	행사 및 회의명	참가업체 및 장소	담당부서
12. 2	가전제품 리사이클링사업 추진위원회	가전3사 물류담당 부서장	가 전 산 업 부
12. 3	'98 전자산업 경기전망 세미나	업계 임직원 등 150명(르네상스호텔 3층 다이아몬드 볼룸)	가 전 산 업 부
12. 4	면세쿠폰 관련회의	LG전자, 삼성전자, 대우전자	가 전 산 업 부
12. 4	스위치, 불륨업계 영업부서장 회의	LG전자, 경인전자, 삼성전자, 삼원전기, 제일물산, 스마텔	부 품 산 업 부
12. 4	해외시장 개척기금 관련운영(위) 참석	상근부회장(무역센터 51층)	국 제 부
12. 5	전해집 콘덴서 표준화 회의	삼성전기, 삼영전자, 삼화전기, 대우전자부품	부 품 산 업 부
12. 5	모니터 수출분과 위원회 회의	삼성전자, 대우전자, 한솔전자, KDS, LG전자, 현대전자	정 보 산 업 부
12. 6	제100차 이사회		총 무 부
12.8~12.13	경쟁력 강화기반기술개발사업 실사	모다정보통신 등 25개사	정 보 통 신 부
12. 9	MWO 표준화 회의	LG전자, 삼성전자, 대우전자	가 전 산 업 부
12. 9	단말장치 기술기준 개정회의	삼성전자, 현대전자, LG전자, 태광산업, LG정보통신, 대우통신, 한화정보통신	정 보 산 업 부
12.9~12.12	자본재 표준화 회의 (하중센서, 광센서, 초음파 변환기)	해태전자, 스마텔, 한창	정 보 산 업 부
12.10	가전업계 현안문제 타결을 위한 대책회의	LG전자, 삼성전자, 대우전자	가 전 산 업 부
12.11	마그네트론 기술 위원회		정 보 산 업 부
12.12	자기미디어협의회 임원회의	코오롱, SKC, 새한미디어, LG전자, SKM, 효성생활산업	부 품 산 업 부
12.16	세탁기 표준화 회의	LG전자, 삼성전자, 대우전자, 한영전자	가 전 산 업 부
12.16	전기 수술기 표준화 회의	대화기기 등 3개사	정 보 산 업 부
12.16~12.17	정보기술 협정(ITA II) 추가 품목에 대한 업계 회의		정 보 산 업 부
12.17	가전제품 리사이클링사업 실무 위원회	LG전자, 대우전자, 삼성전자	가 전 산 업 부
12.17	IEC TC-39 WG1 실무위원회		부 품 산 업 부
12.17	IMF 대책회의	산업부서 과부장 등 12명	가 전 산 업 부
12.19	음극선관 등록 심의 위원회	(10층 회의실)	부 품 산 업 부
12.19	하반기 사업 심사평가 및 98년도 사업계획 검증회의		가 전 산 업 부
12.23	통신 단말장치 시험 방법에 관한 관련업계 회의	삼성전자	정 보 산 업 부